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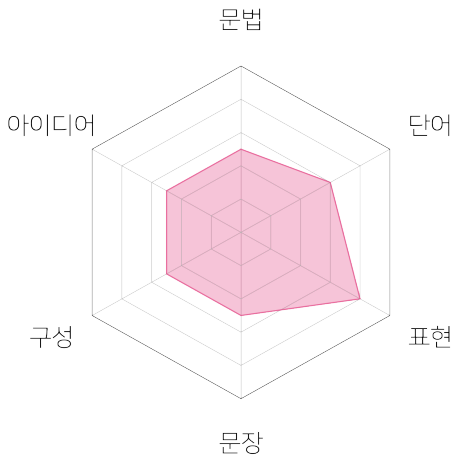


### 종합 평가

74.6 점

주제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글의 내용을 갖추었는지, 맞춤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문장 성분을 모두 갖춘 문장을 구사하였는지 항상 검토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지표 분석



[문법]	C+
[단어]	B
[표현]	A
[문장]	C+
[구성]	C+
[아이디어]	C+

- [문법]**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국어 문법 규칙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 [단어]** 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의미가 맞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해요.
- [표현]** 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접속 표지도 활용해 보세요.
- [문장]** 한 종류의 문장형태로 글을 쓰네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장을 사용해 보세요.
- [구성]** 글의 주제를 생각하며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글의 구조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 [아이디어]** 주제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현할수록 독자가 읽기 편한 글이 된답니다. 뒷받침 문장에 신경써주세요.

### 통계 분석



전체 글자 수	1018 자
전체 문장 수	20 개
전체 문단 수	4 개
단어의 평균 길이	3.0 자
분석 오류 문장 수	1 개
글 흐름의 자연스러움	69.0 %

화제 제시    중심 내용    마무리

조로증은 일반적인 속도보다 훨씬 빨리 노화가 일어나는 질병이다. 외모 뿐만 아니라 신체 기관 등 온 몸의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병인 것이다. <두근두근 내인생>에는 조로증을 앓고 있는 17살 소년 아람이가 있다. 아람이는 조로증이 발병되었기 때문에 주름도 많고 피부도 좋지 않다. 17살 소년들이 당연하게 하는 등교나 축구 등의 가벼운 활동도 하지 못한 채, 지루함과 걱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아람이는 지루한 삶을 지내다가 서하라는 친구를 이메일을 통해 만나게 된다. 아람이는 서하를 만나서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친구와의 우정과, 이성친구의 설렘도 새롭게 느끼게 된다. 하지만 서하는 가상의 인물이었다. 아람이와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어른이 만들어낸 가짜였던 것이다. 가상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그 충격으로 아람이는 시력을 잃었지만 새로운 감정도 느껴 보고 친구와 또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웠던 순간이 소중한 고맙다고 생각한다. 아람이는 서하에게 마지막에 남긴 편지에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까지 전하면서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곁에 있다고 말해 주었다. 서하는 아람이에게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해서, 짧지만 두근두근한 인생을 살게 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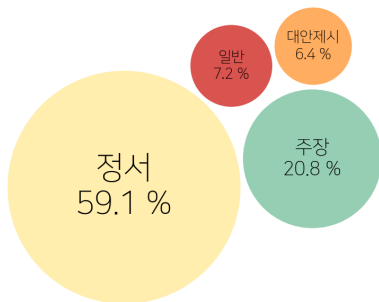
나 또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나는 애플 제품을 뜯을 때 마음이 두근두근하다. 종이 뜯는 쾌감과 애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을 준다. 비싼 돈을 내고 샀지만 애플 제품을 들고 밖에 나갈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 또 초등학교 때 학예회에서 줄넘기를 하면서 '몇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해온 것을 걸리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할 때,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며 무대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의 환호와 조명이 나의 마음을 더 뛰게 했다.

아람이는 짧으면서도 긴 17년 인생을 부모님 덕분에堂堂하게 살아 보고, 비록 가상의 친구였지만 잊지 못 할 하나의 감정을 경험했다. 정말 두근두근한 인생인 것 같다. 나의 두근두근 인생은 무언가를 했을 때 행복함을 알고 목표나 계획을 이루고 성취했을 때 뿌듯한 감정이 나의 두근두근 인생인것 같다.

## 글 탐색

문장과 문단의 성격을 분석하여 '성분 분석 버블차트'를 제시합니다.

'주장/설명/찬성반대/대안제시/정서/일반진술'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쓴 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서 : 개인적인 감정이 드러난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주장 : 자기의 의견을 내세운 표현과 문장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일반 : 주로 글짓기에서 정서 표현을 제외한 글을 의미합니다.

대안제시 :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 인생, 무언, 감정

**도움말** 시가 이 글의 주제로 선정한 단어들이입니다.

**좋아요** 주제와 어울리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어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1 문단

조로증은 일반적인 속도보다 훨씬 빨리 노화가 일어나는 질병이다. (1)외모 뿐만 아니라 신체 기관 등 (2)온 몸의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병인 것이다. <두근두근 내인생>에는 조로증을 앓고 있는 17살 소년 아람이가 있다. 아람이는 조로증이 발병되었기 때문에 주름도 많고 피부도 좋지 않다. 17살 소년들이 당연하게 하는 등교나 축구 등의 가벼운 활동도 하지 못한 채, 지루함과 걱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1) 외모 뿐만  
→ 외모뿐만

**도움말** '뿐'은 의존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조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 조사로 쓸 때는 명사와 붙여 써야 옳습니다. (예) 이것뿐이다.

(2) 온 몸의  
→ 온몸의

**도움말**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꼭 찬', '완전한', '전부의'를 의미하는 말로 쓸 때는 '온'을 접두사로 씁니다. (예) 온몸, 온달, 온음, 온마리

**포인트** 다른 이의 말을 옮겨 오거나, 책 또는 문서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따옴표나 괄호 안의 내용에 틀린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좋아요** 다양한 어휘로 느슨하지 않은 문단을 완성했습니다. 독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문단입니다.

**고쳐요** '뿐'은 의존명사나 조사로 둘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의존명사로 쓸 때와 조사로 쓸 때의 차이점을 공부해 보세요.

**고쳐요** 접사는 어근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역할을 해요. 접사에 대해 공부해 보세요.

## 2 문단

아람이는 지루한 삶을 지내다가 서하라는 친구를 이메일을 통해 만나게 된다. 아람이는 서하를 만나서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친구와의 우정과, 이성친구의 설렘도 새롭게 느끼게 된다. 하지만 서하는 가상의 인물이었다. 아람이와 대화를 해 보고 싶다고 생각한 어른이 만들어낸 (3)가짜였던것이다. (4)가상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그 충격으로 아람이는 시력을 잃었지만 새로운 감정도 느껴 보고 친구와 또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웠던 순간이 소중한 고맙다고 생각한다. (5)아람이는 서하에게 마지막에 남긴 편지에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까지 전하면서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곁에 있다고 말해 주었다. 서하는 아람이에게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해서, 짧지만 두근두근한 인생을 살게 한 것 같다.

(3) 가짜였던것이다  
→ 가짜였던 것이다

**도움말** [맞춤법 표준안 42조]에 따르면 의존 명사는 앞의 어미와 띄어 써야 합니다. 또한 문장 성분이 다른 단어나 명사가 덧붙을 때는 각각의 단어를 띄어 씀이 바릅니다.

(4) 가상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그 충격으로 아람이는 시력을 잃었지만 새로운 감정도 느껴 보고 친구와 또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웠던 순간이 소중한 고맙다고 생각한다.

**도움말** 문장이 너무 길면 내용을 한번에 파악하기 힘들어 독자가 집중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적절한 길이의 문장으로 나누어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아름이는 서하에게 마지막에 남긴 편지에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까지 전하면서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곁에 있다고 말해 주었다.

**도움말** (4)번 첨삭을 참고하세요. 반복된 코멘트입니다.

### 3 문단

나 또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나는 애플 제품을 뜯을 때 마음이 (6)두근두근하다. 종이 뜯는 쾌감과 애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을 준다. 비싼 돈을 내고 샀지만 애플 제품을 들고 밖에 (7)나갈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 또 초등학교 때 학예회에서 줄넘기를 하면서 '몇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해온 것을 걸리지 않고 잘할 수 (8)있을까?'할 때, 마음이 (9)두근두근거리며 무대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의 환호와 조명이 나의 마음을 더 뛰게 했다.

(6) 두근두근하다  
→ 두근두근한다

**도움말** 동사로만 사용되는 경우 현재형을 씀이 바릅니다. 동사는 기본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 착안해 현재형으로 제시합니다.

(7) 나갈 생각하니  
→ 나갈 생각 하니

**도움말** 앞에 관형사나 관형형이 오면, 뒤에 오는 '명사+하다'에 있는 '명사'가 명사의 뜻이 명확하므로 '명사 하다'로 띄어 써야 합니다. (예) 어려운 일 하고 있다.

(8) 있을까?' 할  
→ 있을까?' 할

**도움말** 띄어쓰기 오류입니다. 대치어를 참고하여 띄어 쓰도록 합니다.

(9) 두근두근거리며  
→ 두근거리며, 두근두근하며

**도움말** 몹시 놀라거나 불안하여 가슴이 자꾸 뛰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는 '두근두근'으로 쓰고 '하다' 동사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두근거리다', '두근대다'는 원래 동사입니다. 따라서 '두근두근거리다'나 '두근두근대다'는 틀린 말입니다.

※ 또한, 또

**도움말** 이 문단에서는 같은 종류의 접속표현을 연속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종류의 접속표현은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속표현이 없어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쳐요**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는 명사는 띄어서 쓰도록 해요. 용언의 관형사형에 대해 공부해 보세요.

### 4 문단

아름이는 짧으면서도 긴 17년 인생을 부모님 덕분에 당당하게 살아 보고, 비록 가상의 친구였지만 (10)잊지 못 할 하나의 감정을 경험했다. 정말 두근두근한 인생인 것 같다. (12)나의 두근두근 인생은 무언가를 했을 때 행복함을 알고 목표나 계획을 이루고 성취했을 때 뿌듯한 감정이 나의 두근두근 (11)인생인것 같다.

(10) 잊지 못 할

→ 잊지 못할

도움말

[못 하다, 못하다] '못'을 붙여 쓴 예에는 열등하다는 뜻(능력이 없다,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않습니다.),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극에 달해 그것을 더 유지할 수 없음'의 뜻이거나 부정의 어미 '-지' 다음에 올 때입니다. 단,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극에 달해 그것을 더 유지할 수 없음'을 뜻할 때는 보조 형용사로 주로 '희다 못해'처럼 '-다(가) 못하여'의 구성으로만 씁니다. 이 이외의 예에는 '못'이 부사이므로 띄어 써야 합니다. [못 되다, 못되다] '성질이나 하는 짓이 악하거나 고약하다', '못나거나 덜 되다'의 뜻이면 '못되다'가 바르며, 다른 경우에는 '못'이 부사이므로 '못 되다'가 바릅니다.

(11) 인생인것

→ 인생인 것

도움말

[맞춤법 표준안 42조]에 따르면 의존 명사는 앞의 어미와 띄어 써야 합니다. 또한 문장 성분이 다른 단어나 명사가 덧붙을 때는 각각의 단어를 띄어 씀이 바릅니다.

(12) 나의 두근두근 인생은 무언가를 했을 때 행복함을 알고 목표나 계획을 이루고 성취했을 때 뿌듯한 감정이 나의 두근두근 인생인것 같다.

도움말

문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장 성분이 모두 갖춰져 있는 문장인지 확인해 보세요. 꾸미는 말과 꾸며지는 말의 사이는 가까워야 왜곡 없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두근두근, 정말, 비록

좋아요

해당 문단은 의도를 표현하는 단어를 풍부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도를 드러냄에 있어 효과적인 글입니다.

※ 글을 끝맺음하는 문단에 어울리는 표현을 활용해 보세요.

도움말

(예) 그러므로,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등

포인트

다양한 어휘를 사용한 문단입니다. 문단의 길이에 비해 사용한 어휘의 수가 많아요. 하나의 문단에 너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포인트

글을 마무리하는 말이 없습니다. 좋은 글은 완결성을 가져야 합니다. 주제를 정리하여 한 번 더 밝혀주는 문장을 활용해보세요.

고쳐요

'못하다'와 '못 하다'는 사용 용례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되어요. 차이점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

# 지금 평가 받은 글로 키위챗과 대화해 보세요.

※ QR코드를 인식하거나 클릭하면 '키위챗'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내가 쓴 글을 읽고, 더 넓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해요.
- 나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 글에 드러난 나의 생각과 경험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